 질병관리청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2. 4. 12. / (총 11매)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과	과 장	황 경 원	전 화	043-719-7160
	담당자	신 나 리		043-719-7162
		황 지 혜		043-719-7167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단 장	이 소 라		051-888-3330
	팀 장	이 정 민		051-888-335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 장	민 상 기		051-309-2800
	담당자	최 정 혜	051-309-2857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4월 11일,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 ◇ SFTS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예방수칙 준수 철저
- ◇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이하 SFTS)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5일 전부터 경남 거제시 소재 텃밭에서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을 하였고,
 - 3월 30일부터 오한, 발열,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후 전신 쇠약, 말 어눌 증상으로 진행(4월 7일)되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 백혈구·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4월 11일에 SFTS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 SFTS는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 국내에서는 2013년 첫 SFTS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1년까지 총 1,51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279명이 사망하여 약 18.5%의 치명률을 보였다.

* 2021년 SFTS 환자 178명, 사망자 28명 발생(잠정통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환자수(명)	272	259	223	243	178
10만명 당 발생률	0.53	0.50	0.43	0.47	0.34
사망자수(명)	54	46	41	37	28
치명률(%)	19.6	17.8	18.4	15.2	15.7

□ SFTS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봄철 산나물 캐기, 등산,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 한편, 의료인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최근 15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 SFTS 환자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붙임> 1. SFTS 개요
2. 국내 SFTS 환자 발생 현황
3. SFTS 예방수칙 안내 카드뉴스
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5.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
6. SFTS 관련 질의응답(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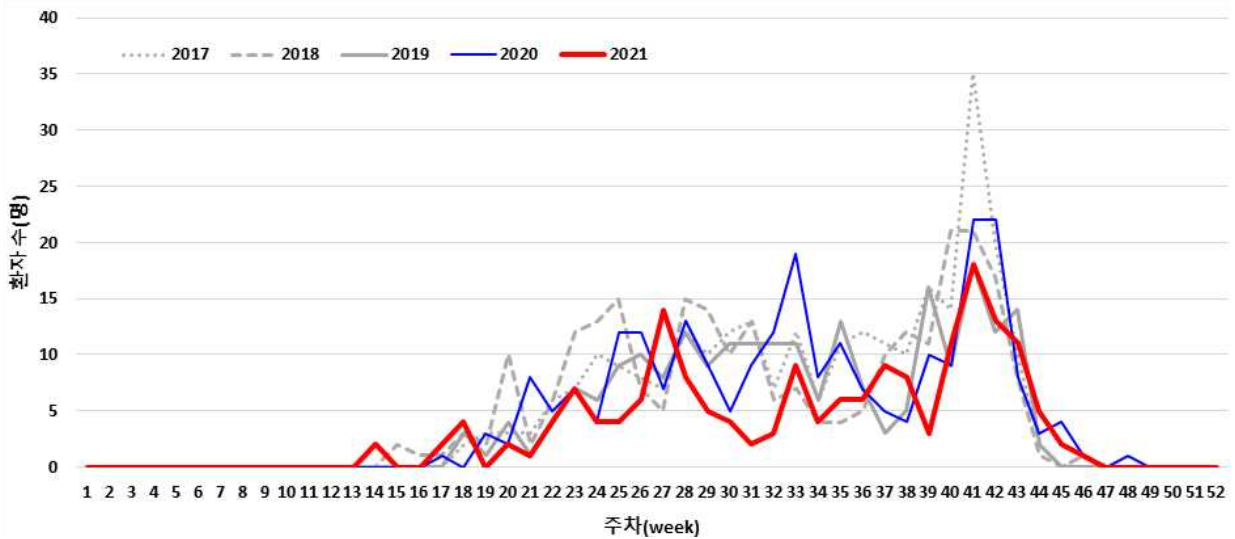
붙임1

SFTS 개요

구 분	내 용
정 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i>Dabie bandavirus</i>) 감염에 의한 질환
질병 분류	□ 제3급 법정감염병 (* ICD-10 A98)
병원체	SFTS 바이러스(<i>Dabie bandavirus</i>)
매개체	□ 주요 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i>Haemaphysalis longicornis</i>) 그 외에도 개피참진드기(<i>Hamaphysalis flava</i>), 뭇뚝참진드기(<i>Amblyomma testudinarium</i>), 일본참진드기(<i>Ixodes nipponensis</i>) 등
감염경로	□ 주로 SFTS viru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 사람 간 전파 보고됨 -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잠복기	4~15일
호발시기	4월~11월
호발대상	주로 50대 이상
임상증상	□ 주증상은 38℃ 이상의 고열과 소화기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주요 검사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치명률	12~47% 정도 (2013~2021년 평균 18.5%)
치 료	□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 관리	□ 환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 :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 접촉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예 방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돛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붙임2

국내 SFTS 환자 발생 현황



<2017~2021년 SFTS 주간 발생 현황>

1. 연도별·월별 환자 발생현황/사망자수

연도	월별 환자 발생수(명)													사망자수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510	0	1	1	17	99	220	257	243	247	400	25	0	279
2013	36	0	0	0	0	7	4	10	6	2	5	2	0	17
2014	55	0	0	0	1	2	7	11	9	11	12	2	0	16
2015	79	0	0	0	0	7	10	16	13	16	15	2	0	21
2016	165	0	1	0	3	10	13	18	18	34	62	6	0	19
2017	272	0	0	0	0	15	34	45	47	49	79	3	0	54
2018	259	0	0	0	4	21	49	49	29	39	67	1	0	46
2019	223	0	0	0	1	11	34	46	45	35	51	0	0	41
2020	243	0	0	0	1	18	38	40	51	30	59	6	0	37
2021	178	0	0	1	7	8	31	22	25	31	50	3	0	28

* 2021년 통계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

2. 연도별·연령별 환자 발생수

연도	연령별 환자 발생수(명)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1,510	1	5	28	33	67	304	405	667
2013	36	0	0	1	0	1	6	11	17
2014	55	0	0	4	1	4	12	14	20
2015	79	0	2	4	3	5	11	17	37
2016	165	0	0	3	2	10	38	41	71
2017	272	0	2	2	5	10	65	77	111
2018	259	0	1	3	4	18	50	68	115
2019	223	1	0	3	3	9	41	63	103
2020	243	0	0	7	11	5	46	59	115
2021	178	0	0	1	4	5	35	55	78

* 2021년 통계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

3. 연도별· 시도별 환자 발생수

연도	시도별 환자 발생수(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510	79	14	68	21	7	20	36	263	202	45	133	63	91	219	144	96	9
2013	36	0	1	5	1	0	0	2	0	3	0	2	0	5	6	5	6	0
2014	55	5	0	1	0	0	0	0	8	4	2	2	0	1	19	5	7	1
2015	79	0	0	5	4	0	2	2	7	15	0	5	2	9	9	10	9	0
2016	165	16	1	4	3	1	2	0	28	29	11	9	3	9	25	15	8	1
2017	272	9	3	5	4	2	4	4	56	39	12	30	10	18	39	16	21	0
2018	259	14	4	3	1	0	4	7	47	35	12	22	13	16	38	28	15	0
2019	223	9	1	7	3	1	4	8	42	30	3	24	18	16	25	19	9	4
2020	243	12	0	25	3	2	3	7	37	28	3	21	11	8	33	35	13	2
2021	178	14	4	13	2	1	1	6	38	19	2	18	6	9	25	11	8	1

* 2021년 통계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

붙임3

SFTS 예방수칙 안내 카드뉴스

2021.04.27. 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올해 첫 환자(사망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2021.04.27. 질병관리청

진드기! 어디에 많이 있을까?

진드기는 풀이 있는 장소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습니다.

2021.04.27. 질병관리청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진드기에 물리나요?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 흡혈합니다.
대부분 밭밭 작업 등 농작업을 하는 경우나 등산, 산책, 성묘, 산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 시에 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2021.04.27. 질병관리청

진드기에 물리면 모두 SFTS에 감염되나요?

SFTS감염과 관련된 진드기는 **참진드기류**이며 크기는 0.1~7mm로 주로 4~11월에 활동합니다.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04.27. 질병관리청

SFTS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 이내 **고열(38~40도),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혈뇨, 혈변, 결막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활동이나 진드기 물림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04.27. 질병관리청

만일 진드기에 물렸다면?

크기가 작아 물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드기를 제거해 주세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 1 손으로 떼지 말고 핀셋을 사용하세요!
- 2 피부 깊숙이 핀셋을 밀어 넣은 후 진드기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해주세요!
- 3 해당 부위를 소독해 주세요!

2021.04.27. 질병관리청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야외활동 전

- 안전하게 옷 갖춰 입기 (밝은 색 긴 옷, 목이 긴 안감, 모자, 목수건, 장갑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활동 중

- 휴식 시 등자라 사용하기
- 몸에 옷 벗어 놓지 않기 / 풀숲에 앉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및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착용 부장 일체 세탁 및 목욕
- 발에 빨간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고 있는지 확인하기
- 동작열 또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치료나 입원 증상과 유사(면역)으로 병입진료 시 의료진에게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 알리기

2021.04.27. 질병관리청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붙임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3GO!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검은 딱지



물린 자국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쯔쯔기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
- 주로 텃밭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등산, 나물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숲 피하고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붙임5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테(의료기관 종사자용)

의료기관종사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 감염 예방 수칙

SFTS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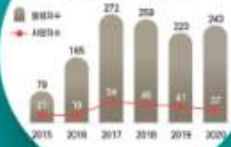


진드기 물림
주로 4~11월 사이에 발생
드물게 사람 간 전파
SFTS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직·간접 노출

**고열(38~40°C)
소화기증상**
(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백혈구 감소



5명 중 1명 사망
(치명률 약 20%)



SFTS (의심) 환자 진료 시

발열, 설사,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는 환자 문진 시 야외활동력 물어보고, SFTS를 의심하세요!
SFTS (의심)환자 심폐소생술이나 사망환자에 의해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하기

SFTS (의심) 환자 감염 예방법

표준주의·접촉주의 준수하기

- 손위생
 - 노출된 부위는 오염물질이 있을 때 40~60초 물과 비누
 - 노출된 부위는 오염물질이 없을 때 20~30초 손소독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사망환자 사후 처리 시 접촉주의 준수하기

중증환자 관리 시 비밀주의 (필요시 N95/KF94 등급이상 마스크 착용)

개인 보호구 착용 시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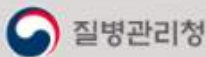
착용시	탈의시
 손가락으로 마스크 코부분이 밀착되도록 누르기	 걸 부분을 최대한 만지지 않는 것이 원칙 개인 보호구 탈의 단계 마다 손 위생
 앞은 모소를 위를 향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	 앞과 뒷면을 번갈아 만지지 않도록 주의 앞면 안쪽이 밖으로 오도록 뒤집어 탈의
 앞면 보호구는 앞면을 만지지 않거나 (눈, 콧막 닦지)	 마스크 앞면을 만지지 않고 끈만 잡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SFTS(의심)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 시 대처방안

노출된 부위는 철저히 물과 비누로 씻기

결막에 노출된 경우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충분히(15분 이상) 세척

노출 후 15일 동안 하루 2회씩 발열 감시 및 추적관찰 시행



붙임6

SFTS 관련 질의응답(Q&A)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인가요?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Q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니까?

-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잠복기)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수주 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7. 환자와 접촉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 공기나 비말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를 때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혈액접촉감염예방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